

경제

알뜰주유소 휘발유값이 더 비싸네

전남지역 53곳중 최저가 판매 3곳뿐
광주 현실성 없는 공급가 활성화 안돼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가 광주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정부의 공급가가 그다지 싸지 않아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알뜰주유소가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도심이 아닌 외곽 농촌지역의 농협주유소다.

전환한 곳은 3개뿐이다. 지역에서 최저가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북신안농협, 영광군농협, 정남진장흥농협 등 3곳에 불과했다. 22개 시·군 중 지역 내에서 휘발유 값을 저렴하게 파는 주유소 상위 10위 안에 알뜰주유소가 이름을 올린 지역은 광양(5곳), 신안(5곳), 해남(2곳) 뿐이었다.
반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역 평균 휘발유 값보다 비싼 주유소도 8곳이나 됐다. 특히 신안은 지역 평균 휘발유 값(2034원)보다 알뜰주유소 3곳(신안·압해·비곡농협주유소)에서 판매가가 1당 6~16원 비쌌다.
알뜰주유소보다 더 싸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일반주유소도 80곳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여수 19곳, 고흥 17곳, 화순 14곳, 나주 8곳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대량구매한 석유제품을 좀 더 싸게 공급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휘발유를 판매한다는 게 알뜰주유소 운영 취지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네

Table with columns: 지역평균 휘발유 값과 알뜰주유소 판매가 비교, 지역평균가, 알뜰주유소 판매가. Rows include locations like 광산구, 장성, 진도, 화순, 곡성, 신안, 고흥.

정부가 정유사보다 값싼 석유제품을 들여와 공급하지 않는 이상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고민했던 김모(53)씨는 "알뜰주유소들이 공급받는 휘발유 가격이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다"며 "알뜰주유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류세 등을 인하하면 휘발유 값이 최대 200~300원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바닥쳤다” 2분기 경기 호전 전망

광주 제조업체들 경기전망지수 1분기보다 33P 상승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분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 10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실적치는 56으로, 지난해 2분기(100)이후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분기(43) 이후 3년만에 최저치다.
이해·출판(20), 비금속광물(30), 음식료(33), 전기·전자(58), 자동차·운수장비(64), 고무·화학·플라스틱(73)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계절적 비수기와 경기 불안이 겹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역 기업들은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2분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BSI 전망치는 114로, 지난 분기(81)보다 무려 33포인트 오르며 4분기만

에 상승 반전했다.
지난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예상한 업체가 35.4%(전분기 19.8%)로, '악화된다'고 응답한 업체 21.2%(전분기 38.4%)보다 많았다. '비슷하다'고 내다본 업체는 43.4%(전분기 41.8%)였다.
별절적 비수기인 동절기가 지난 데다 경기 불확실성이 진정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광주상의는 분석했다. 또 1분기 저조했던 실적을 바닥으로 본 것도 전망치를 끌어올린 한 요인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은 대내외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121)이 늘고, 그에 따라 생산설비가동률(119), 생산량(118)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원자재 구입가격(63) 상승으로 제조비용이 늘어 영업이익(91)은 다소 감소하고, 자금사정(96)도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150)의 경기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전자(132), 기계장비(122)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설비건설협 정기총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이연종·사진)는 27일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프라운관호텔에서 회원사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ble with columns: 로또복권 (제48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Rows show winning numbers and prize amounts.



탠디 구두 굽일가전 25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시즌 이벤트홀에서 열린 '탠디 구두 굽일가전'을 찾은 여성고객이 구두를 살펴 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열리며, 남성화는 10만8000원, 여성화는 8만9000원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 강화

직원 근무평정·영업점 성과평과 실적 반영
광주은행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활동이 강화된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올 1월부터 '영업점 KPI(성과평가제도)' 실적에 반영하고 전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종합 근무평정지침에 '인사포인트제'를 신설해 지난 1월부터 개별 반영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생경영 실천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임직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기 위해 각

청·장년 5000여명 취업 지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내일 희망찾기' 프로젝트
광주·전남지역 청·장년 5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업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25일 지역 청년 및 중·장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한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 취업 알선이나 직업심리검사·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희망지종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1단계)해 이와 연계된 직업훈련(2단계)을 한 뒤, 취업 알선(3단계)을 하는 단계적·통합적 취업 지원 서비스다.
청년층은 만 15~29세(군복자 32세)의 고교 및 대졸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중·장년층은 만 40~64세로 최근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청년층 2087명, 장년층 3657명 등 총 569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비용을 면제해 주고 최대 월 31만6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문의, 광주고용센터 1350 또는 062-609-8791~8799.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완만한 상승 흐름 재개
실적시즌 차별화 전략

코스피의 회복세가 조금 더 이어지더라도 2000 포인트 부근에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투자전략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가 매수세를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힘이 견제하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유동성 장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주가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재개할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유지되고 있고 또 다른 대형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 및 유럽 경기둔화 우려감이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3월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유럽 PMI지수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둔화 우려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경기지표 부진은 코스피 2000선 위에서의 경제매물 소화와 연초 이후의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국내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저수익의 하락폭 대비 느껴지는 체감지수는 낫셀 추위처럼 투자심리의 일시적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저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당분간 작용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IT, 건설, 은행,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개선 흐름이 나타나며 국내 증시의 판더멘탈이 견조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처럼 최근의 조정 흐름 속에서도 판더멘탈 여건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조정보다는 기간조정을 통한 매물소와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판단된다.
다만, 최근 저수익의 조정분위기와 함께 IT, 건설, 금융 업종 등 일부 업종중심의 극심한 차별화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1/4분기 프리 어닝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장분위기를 감안할 때 당분간은 실적변화와 이에 따른 주가민감도를 고려한 선택적인 매매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소비촉진을 앞두고 대응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진출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음식료 및 화장품 관련 종목군에 우선 관심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기부진 여파로 2월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온 정유, 화학, 철강 등 기초소재 섹터는 1/4분기 실적 모멘텀 약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중국의 경기회복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추세적인 반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들 업종의 주가가 연초 수준까지 다시 하락했다는 점에서는 중국 매리트에 근거한 단기 매매나 중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할 전망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광주시내 2중 주거지역 토지구합

대인동산개발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효성공인중개사 공장·창고 전문 공장 임대, 평동공단, 물류창고(하남공단)

전수열 공인중개사 양산동, 연제동, 본촌동, 신용동, 용전동 일대 부동산전문

최고의 가치투자를 원하십니까? 현대공인중개사, 나주혁신도시투자전문,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외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선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